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도시 중산층 부부를 중심으로-

An Ecological Study on the Cause of Wife Abuse Behavior among Korean Husbands*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강사 손정영
교수 유영주

Department of Housing, Family and Child Studies, Kyunghee University

Lecturer : Sohn, Jeong Young

Prof. : Yoo, Young Ju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wo folds : to investigate causes of wife abuse through both husbands and wives as the research subject and through ecological perspective as a theoretical framework.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400 couples in Seoul and Taegu. 280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First, The percentage of samples who reported one or more instances of acts in each scale was 84.3%(236 couples). They reported having been a victim of abuse by their partners at least one instance in the preceding 12 months.

Secondly, the hierarchical and stepwise regression yielded the result that wife abuse behavior by husbands was influenced by husband's microsystem(e.g. job stress, marital satisfaction,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 and organism variables(e.g. husband's perceptions about the violence level of mass media, childhood observation of parental violence, childhood experience of the battering).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38% of variance of wife abuse behavior among Korean husbands.

* 본 논문은 손정영(1998)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I. 문제제기

오늘날 가족내·외부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부간의 갈등이 그 어느 때 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부는 이러한 갈등들을 양자간의 대화나 협력으로 잘 해결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회피하거나 묵인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로써 아내에 대한 폭력의 형태로 표현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김정옥, 1993).

특히 가족 안에서 이러한 아내학대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한 가족원의 회생을 전제로 한 가정의 유지가 결코 바람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제 3자, 사회적으로 조정역할을 하는 사람은 물론, 심지어 그 피해자조차도 타인들간에 일어났다면 비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많은 폭력행위들을 가정내에서 일어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Steinmetz, 1977). 그러나 60년대 아시아에서의 전쟁과 미국내 암살사건, 사회적 혼란, 그리고 자살율의 증가로 인해 사회과학자들과 일반인들이 폭력에 민감해졌다는 점, 때맞는 여성과 관련된 강간추방운동(anti-rape movement)과 같은 여성운동의 등장, 그리고 사회학에서의 갈등이론의 등장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선택적 무관심(selective inattention)'에서 '최우선 순위의 사회적 관심사(high priority social issue)'로 일반인과 학자들의 시각이 부분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 또한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학대받는 여성을 위한 '여성의 전화'의 개통, '매맞는 아내의 집'¹⁾의 개설,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개소 및 1998년 '가정폭력 특별법'의 법적 효력 발효 등이 그러한 변화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학문적인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아직까지는 이론의 정립이나 발전 단계에는 못 미치는 현상조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한편 미국의 경우, 1971년 11월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에서 폭력을 특별주제로 다룬 이후, 1970년대부터는 아내학대의 원인을 각기 다양한 이론으로 접근한 연구와 가정폭력의 가족 내 전이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병행되었으며, 80년대 이후부터

는 아내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의 파악과 더불어 이러한 아내학대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Lewis, 1987). 그 결과 가정폭력 중 일부는 심리적 정신병리로 인해 발생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이것이 또한 모든 사회, 모든 계층의, 상당수의 일반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정상적²⁾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다(Demo, Edwards와 Hoffman, 1994; Dobash와 Dobash, 1979; Straus, 1979; Straus, Gelles와 Steinmetz, 1981). 그리고 최근까지 연구자마다 다양한 이론적 틀을 사용하여 아내학대의 원인규명을 시도함으로써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입증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중 일부는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몇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그러한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내에 대한 폭력, 아내구타, 그리고 아내학대 등의 용어 혼용의 문제(김경화, 1986; 박선미, 1991; 서명선, 1985; Berardo, 1980), 폭력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정신병리이론, 일반체계이론, 사회문화이론 등의 제한된 설명력의 문제,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의 문제로써 상당수 연구에서 폭력 가해자인 남편보다는 폭력 피해자인 아내를 주된 분석단위로 했다(예: 김경화, 1986; 김미옥, 1990; 김이화, 1987; 김정옥, 1985, 1993; 김정옥 등 1990; 심재근, 1984; 이순형, 1988; 정복희, 1993; Follingstad 등, 1990; Hornung 등, 1981; Hotaling과 Sugarman, 1990)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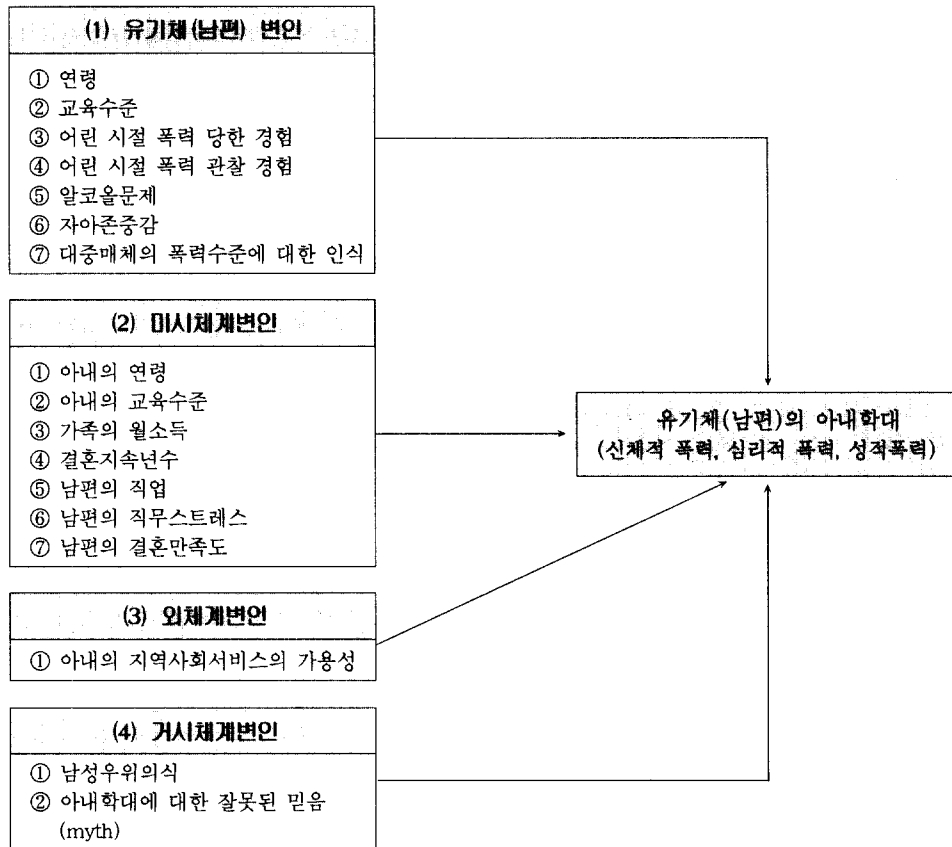
1) 96년 기준으로 매맞는 아내를 위한 쉼터는 전국적으로 10여개가 있으며, 운영주체는 주로 여성단체와 종교단체들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의 4개소(쉼터, 쉼자리, 차매복지관, 화해의 집), 부산 3개소(쉼터, 성현원, 도움의 집), 대구의 '태평상담실', 대전의 '여성의 집', 수원 '생명의 집', 마산의 '여성의 쉼터', 춘천의 '보금자리'가 있다(동아일보, 1996; Walker저, 황애경 역, 1997).

2) 정상적(normal)이라는 용어는 통계적으로 빈번하고, 문화적으로 용인되며,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의해 승인된다는 3가지 의미를 가진다(Gelles와 Straus, 1979). 따라서 이것은 '보편적'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뜻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곧 해결의 대안 없이만 연되어 있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입증해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폭력과 성적 폭력 또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고(Thompson, 1989), 이것이 신체적 폭력의 전조, 또는 결과가 되거나 신체적 폭력과 병행하여 나타나며(Follingstad 등, 1990; Stets, 1990; Straus와 Sweet, 1992), 세 가지 유형의 폭력간에 높은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김정옥·류배희, 1997; 박경규, 1994; Straus, 1974) 결과를 근거로,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그리고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아내학대'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아내학대의 원인을 남편이나 아내의 개인적인 특성과 가족체계의 특성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더 큰 사회적인 맥락에서 그 같은 문제가 초래된 본질적인 영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룸으로써 기존 이론들이 지니는 단점을, 거시체계까지 고려되는 인간발달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남성응답자의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고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 부부의 아내로부터 아내학대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설계를 통해 남편의 아내학대의 원인을 포괄적이고 실질차원에서 규명하고, 아내학대현상의 사전 예방과 사후 치료과정에 본 연구의 결과를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남편의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모형

II.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17개의 아내학대의 원인³⁾을 인간발달 생태학 이론의 환경세분화 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아내학대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편의 아내학대⁴⁾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남편의 아내학대에 대한 유기체, 미시체계, 외체계, 거시체계⁵⁾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결혼한지 만 1년 이상 되었으며 남편의 연령이 30, 40대에 해당되는 일반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내학대의 원인은 가해자이자 행위 주체인 남편을 대상으로, 아내학대실태는 가해자인 남편보다는 피해자인 여성의 보고가 더 타당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아내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전체 연구과정 및 설문지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 서울시와 대구시에 거주하는 50쌍의 30대 부부를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 보완한 후 서울시와 대구시에 거주하는 기혼 남성과 그 아내 400쌍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결과 327(81.8%)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기재가 부실하거나 배우자의 설문지를 다른 한 쪽 배우자가 대신 응답한 것으로 판단되는 설문지 47부를 제외한 280(70%)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AS PC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 상관계수,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그리고 ANOVA(일원 변량분석) 또는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특히 연구문제 2와 관련된 회귀분석과정은 첫 번

째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단계, 두 번째로 다중공선성이 있는 독립변인을 제거한 후 유기체, 미시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의 변인들을 체계별로 하나의 독립군으로 묶어 한 군씩 대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여 모델 1, 2, 3, 4에서 β 의 t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변인을 모두 고르는 단계⁶⁾, 세 번째로써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의 조합을 찾기 위해 전진선택법, 후진 선택법, 그리고 단계적 선택법을 실시하고 그 결과 나타난 결정계수(R^2)와 c(p)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방법으로 최종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단계, 네 번째로써 이상의 과정을

- 3) 각 독립변인 선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 및 이론적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손정영(1998)의 학위논문을 참고 바람.
- 4)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아내학대'라는 용어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5) ① 유기체(organism)란 미시체계 안에서 생활하는 개인으로써, 본 연구의 경우 남편이 유기체이다.
② 미시체계(microsystem)란 성장하는 인간과 그 인간이 속해 있는 가정, 학교, 또래집단, 교회, 직장 등과 같은 직접적인 근접환경, 또는 그 환경 안에서 경험하는 활동, 역할 및 대인관계유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남편의 직장이 이에 속한다.
③ 외체계(exosystem)란 성장하는 유기체가 적극적으로 참여자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이 속해 있는 최근접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④ 거시체계(macrosystem)란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법률적, 정치적 체계와 같이 문화나 하위문화를 포함하는 제도적인 유형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경우 가장장적인 남성우위의식과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이에 해당된다
- 6) 위계적 회귀분석의 최종모델인 모델 4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 이외에 모델 1, 2, 3에서 각각 유의하게 나타났다가 모델 4에서 그 영향력이 사라진 변인들까지 단계적 회귀분석에 포함시킨 이유는, 예를 들면 모델 1에서 유의했던 유기체변인이 최종모델 4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델 2, 3, 4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각 체계변인들이 제거된 이후에 새로이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해 나온 회귀모델에 대해 회귀진단(F 검증)을 하고, DW계수, 분산확대인자를 구함으로써 다중공선성의 유무를 재확인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었다.

부부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된 Straus 등(1996)의 CTS2(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를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독립변인 측정도구

15개 독립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의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2) 종속변인 측정도구

남편의 아내학대: 손정영(1997)의 연구에서 한국

이 척도는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기제인 협상(negotiation), 신체적 폭력(physical assault), 심리적 폭력(psychological aggression), 성적 폭력(sexual coercion) 척도와 신체적 폭력의 결과를 측정하는 상해(injury) 척도를 포함하는 총 39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이 중에서 아내학대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문항은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 그리고 성적 폭력에 대한 27문항이다. 신뢰도는 신체적 폭력의 경우

<표 1> 측정도구의 구성

변인	문항 수	점수범위	비고	출처	신뢰도
연령	남녀각 1		만 연령임		
교육수준	남녀각 1	9개 범주	가변인화 (대졸이상=0, 고졸이하=1)		
직업	남녀각 1	6, 7개 범주	가변인화 (전문직=0, 일반직=1)		
결혼지속기간	1				
가족월소득	1				
대중매체폭력 수준에 대한남편의 인식	3	10점 리커트 0-30 점	매우 폭력적이다 10점- 전혀 폭력적이지 않다 0점		$\alpha=.77$
폭력당한경험	1	4점 리커트 1-4점	자주 있었다 4점- 전혀 없었다 1점		
폭력관찰경험	2	4점 리커트 1-8점	자주 있었다 4점- 전혀 없었다 1점		
자아존중감	7	5점 리커트 5-35점	2, 5번은 역코딩	남정자(1991)	$\alpha=.69$
알코올문제	4	예, 아니오 0-4점	'예'에 1점, '아니오'에 0점 후 합산	조선일보(1996) 한국일보(1997)	$\alpha=.72$
직무스트레스	9	4점 리커트 9-36점	경험했으며 매우 심각 4점-경험없음 1점	McCubbin 등 (1981)	$\alpha=.85$
결혼만족도	4	7점 리커트 4-28점	매우 만족 7점- 매우 불만족 1점	정현숙(1997)	$\alpha=.94$
지역사회서비스의 가용성	1	예, 아니오	가변인화 (있음=1, 없음=0)		
남성우위의식	19	4점 리커트 19-76점	1, 3, 4, 6, 7, 8, 9, 10, 16, 17, 18, 19번은 역코딩	이연주(1982)	$\alpha=.60$
잘못된 믿음	8	예, 아니오 0-8점	'예'에 1점, '아니오'에 0점후 합산	Ewing 등 (1987)	$\alpha=.80$

$\alpha=.93$, 심리적 폭력 $\alpha=.92$, 성적 폭력 $\alpha=.86$ 이며 전체 척도의 타당도는 .95였다.

활용되는 관련 체계변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이 요약된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 및 체계변인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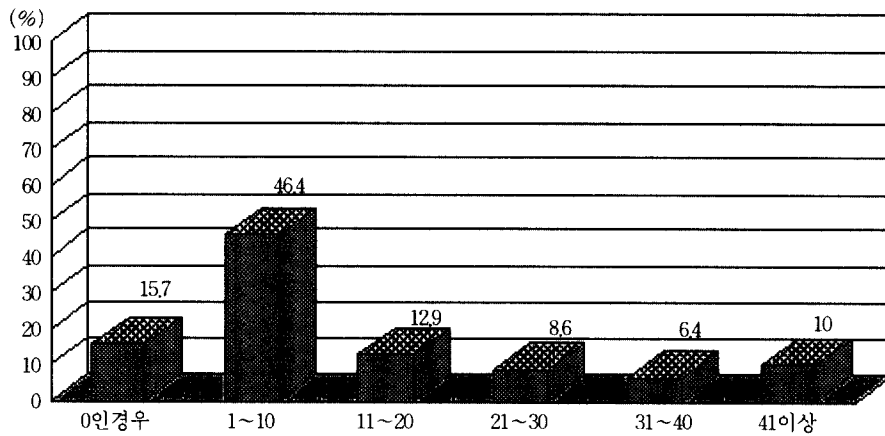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아내학대에 대한 인간발달생태학적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인으로

2. 아내학대의 실태

먼저 아내학대의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발생범위가 0-116점이고 평균은 16.19이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점수대는 1-10점 사이(46.4%)이고 10점-40점 사이가 27.9%, 그리고 40점 이상의 높

<표 2> 조사대상자 및 체계변인의 일반적 특성

변인		결과		변인		결과	
변인	범주	빈도(%)		변인	범주	빈도(%)	
		평균(SD)				평균(SD)	
남편의 연령	30-34세이하 35-39세이하 40세 이상	142(50.7)	94(33.6)	아내의 연령	30세 미만 30-34세이하 35-39세이하 40세 이상	80(28.6)	116(41.4)
		44(15.7)				64(22.9)	20(7.1)
		34.9(4.0)				32.4(4.3)	
남편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대졸 이상	38(13.6)	242(86.4)	아내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대졸 이상	98(35.0)	182(65.0)
남편의 직업	일반직 전문직	194(72.4)	74(27.6)	아내의 직업	전업주부 취업주부	162(62.3)	98(37.7)
결혼지속년수	2년 이하 5년 이하 10년 이하 15년이하	54(19.3)	104(37.1)	아내의 지역사회 서비스의 가용성	있 음 없 음	20(7.1)	260(92.9)
		80(28.6)	42(15.0)			260(92.9)	
		6.1(4.2)					
가족월수입	140만원 이하 14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원 이상	16(5.7)	78(27.9)	어린 시절 폭력당한 경험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24(8.6)	96(34.3)
		88(31.4)	68(24.3)			144(51.4)	16(5.7)
		246(108)				25(0.7)	
어린 시절 폭력관찰 경험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48(17.1)	150(53.6)	알코올문제	평균(SD)	1.6(1.2)	
		72(25.7)	10(3.6)				
		2.0(0.7)					
결혼만족도	평균(SD)	22.2(4.4)		직무스트레스	평균(SD)	17.9(3.9)	
자아존중감	평균(SD)	17.9(3.8)		남성우위의식	평균(SD)	41.4(7.8)	
대중매체의 폭력수준에 대한 남편의인식	평균(SD)	19.9(4.7)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	평균(SD)	3.3(1.5)	



<그림 2> 아내학대 점수 분포

<표 3> 남편의 아내학대 발생을 7)

영역	결과	발생빈도 (명)	백분율 (%)	평균 1 (mean)	표준편차 1 (SD)	평균 2 (mean)	표준편차 2 (SD)
신체적 폭력	심한 폭력	88	31.4	3.07	6.35	9.77	20.20
	약한 폭력	136	48.6	2.75	4.00	5.66	8.24
신체적 폭력		228	81.4	8.26	9.83	10.14	12.07
심리적 폭력	심한 폭력	110	39.3	3.56	6.53	9.06	16.62
	약한 폭력	222	79.3	4.70	4.14	5.93	5.22
심리적 폭력		332	118.6	8.26	10.67	15.09	21.84
성적 폭력		94	33.6	2.11	5.04	6.29	15.01
성적 폭력	심한 폭력	22	7.9	0.77	3.04	9.80	38.69
	약한 폭력	92	32.9	1.33	2.46	4.05	7.49
아내 학대		236	84.3	16.19	22.58	19.21	26.78

은 아내학대점수를 보이는 비율도 10%였다.

그런데 약한 폭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점은 각 폭력행위가 일년에 한 두번 일어난 경우, 2점은 일년에 서너번 일어난 경우, 3점은 한달에 한 두번 일어난 경우, 4점은 일주일에 한 두번 일어난 경우, 5점은 거의 매일 일어난 경우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인 아내학대점수의 평균 16.19는 17개 정도의 약한 폭력, 또는 8개 정도의 심한 폭력이 일년에 한 두번 일어나거나, 6개의 약한 폭력이나 3개의 심한 폭력이 한달에 한 두번 정도, 그리고 3개의 약한 폭력이나 1.5개 정도의 심한 폭력이 거의 매일 일어났음을

7) 평균 1과 표준편차 1은 전체 사례(280명)에 대한 수치이고, 평균 2와 표준편차 2는 아내학대 및 하위영역의 발생 사례에 대한 수치이다.

그리고 아내학대현상이 모든 부부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학대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발생빈도와 학대행위의 종류에서의 개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표준편차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중 한 개인이 두 가지 이상의 폭력유형을 동시에 행하는 경우에 각 하위폭력 유형에 각기 포함시킴으로써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의 백분율이 아내학대의 전체 백분율을 상회한다.

의미한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한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아내학대행위가 특정한 몇 가지 형태로 유형화되어 나타난다(Gelles, 1972; Straus 등, 1996)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점수분포는 본 연구 표본의 아내학대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전체적인 아내학대 및 하위폭력유형별 발생률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먼저 아내학대의 하위개념의 하나인 남편의 신체적 폭력의 발생률은 51.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30, 40대 기혼 여성 두 명 중 한 명이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체적 폭력 중 심한 신체적 폭력의 발생률은 31.4%, 약한 신체적 폭력은 48.6%로 나타났다. 따라서 약한 폭력과 더불어 심한 신체적 폭력을 동시에 사용하는 남편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심리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 보다 훨씬 높은 81.4%의 발생률을 보였고 심한 심리적 폭력은 39.3%, 약한 심리적 폭력은 79.3%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적 폭력은 전체 발생률이 33.6%로써 10명 중 3명 정도는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남편으로부터 자신이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심한 성적 폭력을 경험하는 아내의 비율은 7.9%이고 약한 성적 폭력을 경험하는 비율은 32.9%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아내학대의 실태를 보면 전체 280명의 부부 중 84.3%에 해당되는 236명의 남편들이 아내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폭력유형들 중에서 심리적 폭력이 이러한 높은 발생률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행위가 발생했을 때 부부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신체적 폭력과 달리 심리적 폭력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전통적인 부자관계중심의 가치관이 부부관계 중심으로 바뀌면서 부부간의 결혼생활의 만족도에 보다 많은 가치를 두는 현대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심리적 폭력의 부작용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임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치료 및 예방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상의 결과 중에서 하나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신체적 폭력의 경우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치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벽쪽으로 세계 미는 행위, 손으로 심하게 때리는 행위, 칼이나 총 등의 흉기를 사용하는 행위, 발로 차는 행위와 같은 심한 신체적 폭력이 세 쌍의 부부 중 한 쌍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한 아내의 외모를 가지고 비난하는 행위, 아내가 아끼는 소유물을 부수는 행위, 아내를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행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하는 행위와 같은 다소 심각한 심리적 폭력행위가 10쌍 중 4쌍의 부부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아내학대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으며, 특히 30대 중심의 대졸 고학력이 많은 본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본 연구 결과는 아내학대를 하위계층에 국한된 문제로 보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관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남편의 아내학대에 대한 체계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먼저 남편의 아내학대와 이것의 하위영역인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적 폭력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네가지 체계수준의 17개의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남편의 연령과 아내의 연령, 그리고 결혼지속기간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수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이 중 남편과 아내의 연령은 제외시키고, 남편과 아내의 공통적인 인구통계적 특성인 결혼지속년수를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유기체 및 3가지 환경체계로 묶이는 15개의 독립변인 중 아내학대에 대해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변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체계별로 분류된 4개의 독립변인군 중 남편의 아내학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군은 유기체변인군으로 나머지 세 개의 독립변

〈표 4〉 남편의 아내학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결과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유기체 변인		미시체계 변인		외체계 변인		거시체계 변인	
	b	β	b	β	b	β	b	β		
남편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1)	11.91**	0.18	9.19*	0.14	9.05*	0.14	9.17*	0.14		
폭력당한 경험	3.98*	0.13	3.32*	0.11	3.30*	0.11	3.31*	0.11		
폭력관찰경험	4.08***	0.23	3.98***	0.26	4.01***	0.26	3.97***	0.26		
알코올문제	2.85**	0.15	1.36	0.07	1.39	0.08	1.35	0.07		
자아존중감	-0.62	-0.14	-0.29	-0.05	-0.29	-0.05	-0.28	-0.05		
대중매체의 폭력 수준에 대한 인식	-1.19***	-0.25	-1.20***	-0.25	-1.19***	-0.25	-1.19***	-0.25		
아내 교육수준 (고졸 이하=1)			-4.52	-0.10	-4.53	-0.10	-4.88	-0.11		
가족월소득			-0.02	-0.09	-0.02	-0.10	-0.02	-0.09		
결혼지속년수			0.72*	0.13	0.75*	0.13	0.73*	0.13		
남편의 직업 (일반직=1)			7.56**	0.15	7.62**	0.15	7.39**	0.15		
직무스트레스			1.48***	0.25	1.49***	0.25	1.48***	0.25		
결혼만족도			-1.20***	-0.23	-1.19***	0.23	-1.16***	-0.23		
아내의 지역사회 서비스의 가용성 (있음=1)					-1.32	-0.02	-1.29	-0.02		
남성우위의식							0.06	0.02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							0.13	0.01		
intercept			16.51		30.98		30.25		27.32	
R ²			.2347		.3982		.3984		.3989	
R ² 증가량					.1635		.0002		.0005	
F			14.00***		14.06***		12.94***		11.15***	

***p<.001 **p<.01 *p<.05

인군의 설명력을 제외하고도 23.5%를 단독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유기체 독립변인군에 속하는 변인 중에서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이 어린 시절 폭력당한 경험, 어린 시절 폭력관찰 경험, 알코올문제, 그리고 대중매체의 폭력수준에 대한 인식변인의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시체계변인군을 추가함으로써 설명력은 39.8%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16.4%의 증가를 보였으며 결혼지속년수, 남편의 직업, 직무스트레스, 결혼만족도 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모델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알코올문제의 효과는 미시체계변인을 통제한 후 사라지는 특성을 보였다. 세 번째 모델에서는 남편의 외체계변인인 아내의 지역사회서비스의 가용성변인을 추가하였는데 설명력의 증가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으며, 이 변인의 유의미한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거시체계변인을 추가한 네 번째 모델에서도 설명력의 증가는 1% 미만이었으며 변인들의 유의미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4단계에 걸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모델 1에서는 유기체 변인 5

개(남편의 교육수준, 어린 시절 폭력당한 경험, 어린 시절 폭력관찰 경험, 알코올문제, 대중매체의 폭력수준에 대한 인식)와 모델 2에서는 미시체계변인 4개(결혼지속년수, 남편의 직업, 직무스트레스, 결혼만족도)의 β 값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상의 각 단계에서 남편의 아내학대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9개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과 설명력을 알아 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이 요약된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앞 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의 모델 1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알코올문제변인이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이것은 알코올이 항상 아내학대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것에 대해 실제로 알코올의 실제적인 약물효과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구실을 위한 수단으로 흔히 남편들이 아내학대를 하기 전에 술을 마신다는 Jaffee 등(1988)이나 Shin(1995)의 견해와 일치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선행연구에서 알코올이 남편의 아내학대의 원인으로 주목받은 이면에는 그 연구대상이 피해자인 아내가 대부분이었다는 사실과 남편이 연구대상인 경우도 임상집단이 대부분이었음을 또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 접근은 남편이 아내학대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아내라는 미시체계가 자기 나름의 인식체계로써 지각한 별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결과를 낳으며, 또한 임상집단 남편들의 알코올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기준으로 도시 성인남성의 음주율이 65.6%에 이른다는 사실(통계청, 1997)로 미루어 볼 때, 아내학대를 하지 않는 남성들의 알코올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는 단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8개 변인(직무스트레스, 결혼만족도, 대중매체의 폭력수준에 대한 인식, 어린 시절 폭력을 관찰한 경험,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의 직업, 어린 시절 폭력을 당한 경험, 결혼지속년수)이 추출되었는데, 이 변인들은

<표 5> 남편의 아내학대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는 t값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b	β	Partial R ²
1	직무스트레스	1.59 (5.23)***	0.27	0.1407
2	결혼만족도	-1.15 (-4.42)**	-0.22	0.0851
3	대중매체폭력수준에 대한 인식	-1.15 (-4.78)***	-0.24	0.0586
4	어린 시절 폭력관찰 경험	7.36 (4.55)***	0.23	0.0438
5	남편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1)	7.19 (2.06)*	0.10	0.0173
6	남편의 직업 (일반직=1)	8.72 (3.19)**	0.17	0.0148
7	어린 시절 폭력당한 경험	3.41 (2.20)*	0.11	0.0133
8	결혼지속년수	0.63 (2.01)*	0.11	0.0096
intercept		19.00		
R ²		.3832		
Adjusted R ²		.3641		
F		20.11***		

***p<.001 **p<.01 *p<.05 DW:1.448 VIF:최고 1.16

전체 분산 중 38%를 설명하였다(F=20.11, p<.001).

그리하여 남편의 직무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대중매체의 폭력수준을 낮게 인식할수록, 어린 시절 부모간의 폭력을 관찰한 경험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 보다는 일반직인 경우,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그리고 남편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보다는 고졸 이하인 경우 남편의 아내학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 값이 .27(R²=.141)인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 다음은 대중매체의 폭력수준에 대한 남편의 인식(β =-.24), 어린 시절 폭력관찰 경험(β =.23), 결혼만족도(β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난 것은 Julian과 Mckenry (1993)의 연구에서 경쟁적인 직업구조 하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남편들이 아내학대의 위험을 더 많이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표 6에서와 같이 직무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른 아내학대의 발생정도를 일원변량분석한 결과 역시 스트레스수준이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아내학대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한편 결혼만족도는 만족도가 낮은 부부일수록 비난하고 불평하는 등의 성향이 강하며(Shin, 1995), 결혼만족도가 낮은 남편의 아내학대율이 높았던 김정옥(1987), 전형미(1990)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 요인 또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결혼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중간 또는 높은 집단에 비해 2배 내지 5배의 아내학대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대중매체의 폭력수준에 대한 남편의 인식이 낮을수록 아내학대가 많다는 결과는 대중매체의 폭력물이 모델이 되어 폭력성향을 학습한다는 사회학습이론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써, 이것은 또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오늘날의 대중매체 폭력수준이 매우 높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주변 요인들에 의해 아내학대를 한 경험이 있는 남편들이 자신의 그런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심리적 기제로써 매체에 등장하는 폭력장면을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일반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변인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또한 폭력수준에 대한 인식이 낮은 집단이 그 외 집단에 비해 높은 아내학대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어린 시절 폭력 당한 경험과 폭력을 관찰한 경험 중 관찰 경험이 직접 경험보다 아내학대에 더 큰 영향력으로 작용한다는 결과이다. 그리고 이것은 남편이 어린 시절 폭력을 직접 경험한 경우보다 폭력을 관찰한 경우 아내학대율이 더 높다는 Kalmuss(1984)의 견해와 일치되는 것이다. 그런데 일원변량분석 결과에서는 어린 시절 폭력당한 경험의 정도에 따른 아내학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어린 시절 폭력관찰 경험의 경우는 그러한 경험이 자주 있었던 집단이 전혀 없는 집단에 비해 5배 이상의 아내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영향력 있는 변인별 남편의 아내학대

독립변인(범주/N)	종속변인		아내학대	
			평균(mean)	Scheffe's G
직무스트레스	낮은 집단	76	8.74	B
	중간 집단	172	13.94	B
	높은 집단	32	45.94	A
	F		42.52***	
결혼만족도	낮은 집단	50	33.92	A
	중간 집단	160	14.50	B
	높은 집단	70	7.37	B
	F		24.83***	
대중매체의 폭력 수준에 대한 인식	낮은 집단	48	30.13	A
	중간 집단	140	16.21	B
	높은 집단	92	8.87	B
	F		15.42***	
어린 시절 폭력 관찰 경험	전혀 없었다	48	10.00	B
	거의 없었다	150	14.84	B
	가끔 있었다	72	18.31	B
	자주 있었다	10	50.41	A
	F		10.37***	
남편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38	30.95	
	대졸 이상	242	13.87	
	t		-2.72**	
남편의 직업	일반직	194	18.83	
	전문직	74	9.30	
	t		-4.23***	
어린 시절 폭력 당한 경험	전혀 없었다	24	15.72	
	거의 없었다	96	15.75	
	가끔 있었다	144	16.75	
	자주 있었다	16	17.00	
	F		0.05(n.s.)	
결혼지속년수	2년 이하	54	8.48	B
	5년 이하	104	13.89	
	10년 이하	80	18.63	
	15년 이상	42	27.14	A
	F		4.95***	

- *** $p < .001$ ** $p < .01$
- n.s. = not significant
- Scheffe의 사후검증결과, 나타난 문자가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며 F값이 유의미하면서 두집단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집단은 문자표시를 생략하였음.

($p<.001$).

이러한 결과는 어린 시절 폭력관찰 경험의 영향력이 직접 당한 경험의 그것보다 크다는 견해를 보다 강력하게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이것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처럼 실제 생활상황에서는 다른 기타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린 시절 폭력당한 변인의 영향력이 새로이 나타나게 된다는 생태학적인 해석이 또한 가능할 것이다.

한편 유기체인 남편의 직업과 교육수준의 경우는 낮은 직업지위일수록 학대율이 높다는 선행연구(김경화, 1986; 김정옥, 1985, 박경규, 1994, 전형미, 1990, Hotaling과 Sugarman, 1990; Martin, 1992)의 결과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내학대율이 높다는 김갑숙(1991), 김정옥(1985, 1987), 박경규(1994), Okun(1980), Steinmetz(1977, 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내의 교육수준이 남편의 아내학대와 무관하게 나타남에 비해 남편의 사회적 직업지위와 그것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남편의 교육수준은 아내학대의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직업적으로 일반적인 집단과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집단이 전문직과 대졸 이상인 집단에 비해 2배 이상의 아내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p<.001$, $p<.01$).

마지막으로 결혼지속년수가 길수록 아내학대성향이 많다는 회귀분석 결과는 김경화(1986), 김정옥(1987), 심재근(1984)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되며, 일원변량분석 결과 또한 결혼한지 11년 이상된 집단이 2년 이하인 집단에 비해 3배 이상의 아내학대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상의 결과들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무엇보다도 대중매체의 폭력성에 대한 남편의 인식을 포함하는 4개의 유기체 변인의 설명력은 13.3%이고, 남편의 직무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직업, 결혼지속기간이라는 4개의 미시체계변인의 설명력은 25.0%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비교하자면 아내학대에 있어 유기체 자신보다는 미시체계의 요인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남편의 직무스트레스($\beta=.27$, $R^2=.141$)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한편 남편을 둘러싸고 있는 외체계와 거시체계의 환경에 존재하는 변인들은 남편의 아내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아내학대에 대해 두 체계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결론짓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실제로 거시체계의 변인의 자료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측정된 객관적인 자료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과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 연구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지엽적인 자료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유기체 변인 중 대중매체의 폭력수준에 대한 인식과 어린 시절 폭력당한 경험과 관찰한 경험은 비록 이것이 유기체 자신의 특성이긴 하지만 이들 또한 가정이라는 미시체계안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온 특성들인 만큼 성장과정에서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부모의 가정교육과 생활전반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이 중요함을 또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결론 및 본 연구의 의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첫째, 아내학대의 실태와 관련하여 10명 중 8명 정도의 아내들이 아내학대사건을 경험하며, 특히 심한 심리적 폭력과 심한 신체적 폭력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한 인간으로써의 여성의 인권보호라는 차원에서 볼 때 아내학대사건을 지극히 일부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이제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인 여성의 심리적, 육체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폭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학문적, 정책적으로 아내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표면화시키는 작업

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법들이 공포된 최근의 정황은 이러한 분위기에 부합되는 환영할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기본 작업으로써 폭넓은 범위에 걸친 실태 파악, 원인규명, 예방대책, 치료대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학계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미국과 같은 예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실제적인 국가의 개입이 미진하거나 경찰, 법원 등의 국가의 개입을 찾는 여성들이 굴욕감을 느끼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그럴 경우 그것은 폭력이 제거되었다기 보다 통제의 장소, 그리고 폭력에 대한 합리화의 장소만이 이동되었음을 의미하게 될 것이므로(Walker, 1979), 법의 제정과 시행에 못지않게 그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외체계, 거시체계보다는 유기체인 남편 자신과 미시체계인 직장과 가족에 아내학대의 원인의 대부분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미시체계의 영향력이 높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아내학대현상은 주로 남편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가족 및 직장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전체로서의 가족을 중시하고 가족의 역동적 체계 속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는 궁극적 목표를 가지는 가족복지의 기본 성격(유영주·김경신·김순옥, 1996)과도 부합된다. 그리고 한편 어린 시절 폭력당한 경험, 어린 시절 폭력관찰 경험이나 대중매체의 폭력수준에 대한 인식이라는 유기체변인이 부모의 가정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미시체계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추측할 수 있으며, 직무스트레스 등의 변인이 거시체계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복지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아내학대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미시체계와

유기체 측면의 원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부모로서는 자녀의 유기체적인 특성을 올바르게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개인(남편)적으로는 남편들이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는 가부장적 남성우월의식을 의식수준으로 일깨움으로써 의식전환을 꾀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해자 개인, 또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프로그램과 사후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정 및 직장 차원에서 보급, 실시하는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생태학적인 관점을 지향하며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유기체를 비롯한 모든 체계변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방법을 취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알코올문제, 자아존중감 등의 변인이 아내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폭력에서는 어린 시절 직접 폭력당한 경험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재검증되고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기존의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접근들의 대부분이 아내학대를 하는 임상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내학대를 하는 일반 남성과 아내학대를 하지 않는 남편들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생태학적인 관점을 통해서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결과와 시각을 제공했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연구과정상의 몇 가지 제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제한점은 연구대상의 대표성 문제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금전상의 제약으로 확률적인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임상표본만을 대상으로 아내학대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던 기존 연구들의 시도와 달리 일반인으로 구성된 표본을 대상으로 원인파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 나름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 중 또 다른 하나는 30, 40대 도시 기혼 남성 중에서도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직업측면과 교육수준의 측면에서 중류

이상이면서 30대인 남성의 특성을 보다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를 표본의 편표성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대단위의 확률표집에 어려움이 따르는 현재의 연구 환경을 감안한다면 중류 이상인 30대 남성의 특성을 반영하는 본 연구 또한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와 유사하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설계형태를 사용하여 보다 다양한 연령, 직업, 교육수준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진행되고 그 결과들이 누적된다면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의 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의 틀을 구성하는데 일조를 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했던 외체계변인과 거시체계변인들의 아내학대에 대한 영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련변인의 측정과정상의 문제(예를 들어 객관적인 남성우위의식 자료나 객관적인 아내학대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 변인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외체계, 거시체계변인들을 개발, 보완하여 연구모형에 도입하는 연구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즉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연구 가능한 수준의 외체계변인과 거시체계변인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의 독립변인 중 아내학대의 원인으로 밝혀진 결혼만족도 변인은 그 성격상 아내학대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의 성격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아내의 경우는 학대받은 뒤의 결혼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남성 가해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는데 그쳤다. 따라서 이 변인의 인과성격에 대한 규명작업이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산발적으로 다루었던 변인들을 중심으로 아내학대의 실질적인 원인을 밝히는데 연구의 기본 목적으로 두었

다. 그런데 이 연구분야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내학대의 원인들간의 인과관계와 자아존중감, 알코올문제 등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증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내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던 변인들이 아내학대 현상에 대해 가지는 간접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는 작업이 후속연구를 통해 이어진다면 그 결과들은 아내학대의 사전예방과 사후치료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아내학대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이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1)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김경화(1986). 아내학대의 영향변인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미옥(1989). 아내학대에 관한 연구-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이화(1987). 아내학대척도(Wife Abuse Inventory)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정옥(1985). 도시부부의 갈등 해결 표출방법에 관한 연구-폭력행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3(2), 91-110.
- 6) 김정옥(1987). 도시주부의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아내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김정옥(1993). 부부폭력에 대한가정관리학적인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1(2), 27-39.
- 8) 김정옥·류배희(1997). 부부폭력과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3), 205-220.
- 9) 김정옥·박순희·채경희·김미옥(1990). 아내학대와 관련된 변인파악 및 아내학대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여성문제연구, 18,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7-31.

- 10) 김정옥 · 전형미 · 이현혜(1990). 아내학대와 관련된 변인파악 및 아내학대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여성문제연구*, 18,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21-44.
- 11) 남정자(1991). 청소년비행의 유형과 그 사회, 심리적 관련 요인 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동아일보(1996). 매맞는 아내를 위한 피난처, 5월 13일자, 25면.
- 13) 박경규(1994). 기혼남성의 스트레스와 폭력과의 관계분석,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박선미(1987). 부부간의 갈등요인에 관한 고찰,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서명선(1985). 아내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3(3), 98-122.
- 16) 손정영(1997). 갈등대처유형척도(CTS2)의 한국 부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남편의 갈등대처유형 및 아내 학대 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 51-87.
- 17) 심재근(1984). 가정내의 폭력과 공격성-아내구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유영주 · 김경신 · 김순옥(1996). 가족관계학, 서울: 교학사.
- 19) 이순형(1988). 부부간 구타행동과 관련변수, 덕성여자대학교 논문집, 17, 143-158.
- 20) 전형미(1989). 남편의 스트레스가 아내학대에 미치는 영향,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정복희(1993). 아내학대가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23) 조선일보(1997). 가정폭력 처벌 강화-제3자도 신고, 격리 등 강제처분, 11월 18일자.
- 24) 조선일보(1996). 술, 약물이다-‘중독’ 자기점검을, 12월 18일자.
- 25) 통계청(1997). 1997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 26) 한국일보(1997). 알코올 중독 자가진단, 11월 15일일자, 15면.
- 27) Berardo, F. M.(1980). *Decade review: Family research 1970-1979*, Minneapolis: NCFR.
- 28) Demo, D. H., Edwards, J. N., & Hoffman, K. L.(1994). Physical wife abuse in a Non-Western society: An integrated theoretical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1), 131-146.
- 29) Dobash, R. E., & Dobash, R. P.(1979). *Violence against wives: A case against the patriarchy*, New York: Free Press.
- 30) Ewing, C. P., & Aubrey, M.(1987). Battered women and public opinion: Some realities about the myth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 257-264.
- 31) Follingstad, D. R., Rutledge, L. L., Berg, B. J., Hause, E. S., & Polek, D. S.(1990). The role of emotional abuse in physically abusive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5(2), 107-120.
- 32) Gelles, R. J.(1972). *The violent home : A study of physical aggress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Newbury Park, NJ.: Sage.
- 33) Gelles, R. J., & Straus, M. A.(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W. Burr, R. Hill, F. I. Nye, & I. Ru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1)*, New York, NY: The Free Press.
- 34) Hornung, C. A., McCullough, B. C., & Sugimoto, T.(1981). Status relationships in marriage: Risk factors in spouse abus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3), 575-692.
- 35) Hotaling, G. T., & Sugarman, D. B.(1990). A risk maker analysis of assaulted wiv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5(1), 1-13.
- 36) Jaffee, J. H., Barbor, T. F., & Fishbein, D. H.(1988). Alcoholics aggression and antisocial personalit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9(3), 347-378.
- 37) Julian, T. W., & McKenry, P. C.(1993).

- Mediators of male violence toward female intimat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8(1), 39-56.
- 38) Kalmuss, D.(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1), 11-19.
- 39) Lewis, B. Y.(1987). 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wife abus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1), 1-10.
- 40) Martin D. 저, 정세웅 역(1992). *매맞는 여자들*, 서울: 한국문연.
- 41) McCubbin, H. I., Wilson, L., & Patterson, J.(1981). *Family Inventory Life Events and change(FILE)*, St Paul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42) Okun, L.(1980). *Women abuse: Facts replacing myths*, Albany, NY: States U. of New York.
- 43) Shin, H. L.(1995). Violence and intimacy: Risk makers and predictors of wife abuse among Korean immigra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44) Steinmetz, S. K.(1987). Family violence: Past, present, and future, In S. K.
- 45) Steinmetz, S. K.(1977). *The cycle of violence: Assertive, aggressive, and abusive family interac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46) Stets, J. E.(1990). Verb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501-514.
- 47) Straus, M. 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48) Straus, M. A.(1974). Leveling civility and violence in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1), 13-29.
- 49) Straus, M., Hamby, S. L., McCoy, S. B., & Sugarman, D. B.(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50) Straus, M. A., & Sweet, S.(1992). Verbal/symbolic aggression in couples: Incidence rates and relationships to pers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May), 346-357.
- 51) Straus, M., A., Gelles R. J., & Steinmetz, S.(1981).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Doubleday Garden City.
- 52) Thompson, S. U.(1989). Components of psychological abuse female victims in domestic violence,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en's University.
- 53) Walker, L. 저, 황애경 역(1997). *그 사랑은 자유가 아니었다*, 서울: 열린.
- 54) Walker, L.(1979). *The Battered Women*, Harper and Row: New York.